



成均館大學校  
建築工學科

尹 一 柱 教授

對談：編輯者

아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제 1)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새로운 價値觀과 秩序確立의 必要性에 對해서 先生任의 意見은 어떻하십니까?

[답]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축문화는 일반문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建築術이 이 땅에 들어 온 후, 우리의 손으로 새 건축을 이룩한지 약 50년 (박길용씨를 起點으로 보고), 발전을 하였다면 많은 발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座標에서 볼 때 아직 우리는 만족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부문은 물론이지만, 현재 가능한 素材만으로 발휘할 수 있는 形態面에 있어서도 우리의 것으로 定着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대개의 作品이 創作主体에서의 發露가 아니라, 어떤 絶對的인 概念속에 建築의 目的을 設定해 놓고 오히려 創作主体로서의 必然性을 糊塗하는 것이 實情이 아닐까 합니다. 建築家는 創作主体를 表現함에 있어 자기의 비전을 確立하고 社會的, 歷史的인 観点에서 그것을 포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建築이 現代의 課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人間活動의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는 現代的인 成果를 그 속에 導人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명이 우리 建築人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보다 높은 價値觀의 확립과 질서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科學的인 認識이 世界像을 그리려고 하는 20세기 후반의 現代에 있어 對社會的役割의 자각과 더불어 建築家의 새로운 人間像의 부각에 努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2) 韓國建築界의 發展을 爲하여 是正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답] 긴 眼目으로는 建築教育의 개선을 들고 싶습니다. 건축교육은 初期에 비하여 表面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으나 그 制度나 內容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개혁된 바 없이 내려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목표가 될 建築人에 對한 비전의 설정, 急進하는 技術의 習得방법, 全國的인 人力需給 計劃, 적성에 맞는 (資質이 있는) 被教育者의 選拔방법 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 문제로는, 세워지는 건축마다 研究精神이 注入되도록 努力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企業主나 건축가나 다 유의할 점이겠습니다. 건설이 급하다는 이유에서 오는 拙速은 결국 이 땅에 醜한 건축으로 차게 할 것입니다. 또한 체질과 분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설계할 줄 아는 금도가 必要하며, 이것은 건축가 상호간의 倫理性의 확립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似而非傳統論에서 오는 復古主義를 이제 止揚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文化材의 複製, 그것은 傳統계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3) 建築士의 資質改善 問題에 對해서……?

[답] 나날이 變化하는 情報社會에 있어 그것을 외면하고서는 개인뿐 아니라 건축계전반의 후진성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지식은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또 그것에 참여되기 쉽습니다. 情報의 원천을 더 높은 次元에서 보아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킴이 절실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건축사”誌의 역할도 큰 바 있을 것입니다.

이상 외람된 말을 용서하십시오.